

# “살아있을 때 쓸래요”... 평생보장 종신보험 중도 해지 속출

고령화 시대 노후소득 확보 과제 종신보험, 사망전 활용사례 늘어 목돈마련 저축성 강화 역할 전환 보험업계, 소비자 수요반영 기회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종신보험 활용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Chat GPT가 생성한 노후 소득과 종신보험 이미지.

기대수명 증가로 노후소득 중요성이 커지면서 종신보험의 역할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사망 전에 활용하는 방식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중도 해지 사례도 급증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0~60세 성인의 노후 소득 확보가 삶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남자 30세, 40세, 50세가 60세 전에 사망할 확률은 각각 15.2%, 14.4%, 9.6%였지만 2023년 6.5%, 5.8%, 4.1%로 떨어졌다. 여자는 각각 5.6%, 4.9%, 3.5%에서 3.1%, 2.6%, 1.

하다고 답변한 사람도 2014년 63%에서 2024년 57%로 집계돼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 소득을 위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사망 전에 활용하는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기존 연금보험·변액보험에 추가로 종신보험을 선택해 사망보장 외 노후 재원 마련에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

종신보험은 매년 납내 함께 100만건 이상의 신계약이 판매되는 대표 상품이지만 지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1170만건이 중도 해지됐다.

업계에서는 종신보험 중도 해지의 원인으로 종신보험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종신보험 계약자가 종신보험의 사망준비금을 연금이나 건강보장의 생존보장에 활용하려는 유인이 크다는 것. 실제로 보험소비자들은 종신보험의 보장성 기능과 함께 사망보험금을 위한 준비금의 활용에 관심

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이후 종신보험의 신계약 가입 금액은 2015년 7000만원대까지 증가했지만 최근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평균 가입금액이 줄어드는 추세다. 2023년 평균 가입금액은 남성 3750만원, 여성 314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가구주의 사망보험금 자체를 축소하는 대신 저축성 기능을 강화해 연금이나 목돈마련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커졌다는 의미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신중한 가입이 요구되는데도 많은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종신보험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종신보험 준비금은 사회환경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연금 재원 또는 장기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 저축성이 강화되는 역할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종신보험의 사망

보험금을 노후 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4년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으로 연금 전환 특약 등을 활용해 사망보험금을 노후 소득의 재원으로 전환·활용이 추진된 바 있다. 올해 3월엔 금융위원회가 사망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종신보험 시장의 변화 및 정책적 움직임에 대해 보험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시장 변화와 함께 소비자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란 평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의 활용도가 사망 보장에만 집중돼 있으면 시대적 흐름에서 소비자 수요와 동떨어질 수 있다”며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측면에서 종신보험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딱 닫힌 지갑 열어라’... 카드사들, 장바구니 혜택 경쟁

경기 한파에 내수잡기 총력  
주유부터 가맹점 할인 혜택

카드업계가 필수소비 영역 할인혜택을 담은 신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쇼핑부터 주유, 관리비 등 다채롭다. 사치품이나 여행보다는 장바구니 소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도매 및 소매업종의 카드승인금액은 46조6500억원 규모였다. 전월 대비 2조15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동기(50조600억원)와 비교하면 감소세는 더 뚜렷하다. 1년새 3조4140억원 줄었다. 도매 및 소매업종은 자동차,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에서의 소비를 의미한다. 국내 산업분류 8종 중 결제 규모가 가장 크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신용카드 승인액도 2달 연속 내리막길이다. 지난 2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신용카드 승인잔액은 11조2100억원이다. 전년 동기(11조6400억원) 대비 4320억원 떨어졌다. 아울러 직전 달인 1월과 비교하면 8600억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소비혜택을 담은 카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Chat GPT가 생성한 ‘장바구니 물가에 힘들어하는 사람’.

원 감소했다. 도소매업 및 외식업종의 지출이 감소하는 것은 내수침체가 지속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카드업계 또한 이같은 소비 행태에 발맞춰 신규 상품을 공개하고 있다. 이달 롯데카드는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통합 혜택을 제공하는 롯데멤버스 카드 2종을 출시했다. 롯데멤버스 브랜드에서 사용한 금액의 최대 5%를 월 5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즉시할인 혜택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 셈이다.

삼성카드는 삼성 iD 스테이션 2종을 공개했다. SK에너지 및 GS칼텍스와 협업한다. 주유 금액의 10%를 할인하며 주유비를 월 최대 3만5000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엔진오일 교체 시 2만원 할인을 연 2회 제공한다. 연회비는 1만5000원이다. 주유량에 따라 발급 첫 달부터 연회비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KB 위시 올 플러스 카드’를 선보였다. 국내 가맹점 1%, 해외 가맹점 2% 할인 혜택을 한도 없이 제공한다. 이어 이동통신요금과 쇼핑 멤버십은 각각 5%, 50%씩 할인한다. 정기결제 할인 혜택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전업카드사 뿐 아니라 특수은행도 생활비 절감 카드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달 수협은행은 ‘올드림 신용카드’를 출시했다. 병원과 약국에서 결제 시 20%, 아파트관리비와 이동통신요금 자동 납부 신청 시 10% 할인을 적용한

다. 주유소에서는 리터(1)당 60원을 할인한다.

카드업계는 경기 한파에 생활비 할인 관련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관측했다. 한동안 신규회원 유입 및 내수촉진에 발맞춰 신상품 출시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트레블카드’ 점유율 경쟁이 활발했다면 올해는 내수 시장 확보 경쟁이 우선순위로 올라왔다.

반면 사치품이나 외식업종 관련 혜택은 축소하고 있다. 신규 상품의 전월실적을 40만~50만원으로 낮게 책정하면서 전월실적이란 카드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이다. 당초 카드업계는 전월실적을 100만원 이상으로 결정하면서 점유율(MS) 확대 경쟁을 타진한 바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해외여행 관련 마케팅은 비자, 마스터카드 등 제휴사와 함께 일회성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카드업계가 내수촉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비심리에 맞춰 일상영역 할인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KB금융그룹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참여 스타트업 모집

KB금융그룹은 오는 16일까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KB금융 계열사와 함께 차세대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 갈 ‘KB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여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KB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유망 스타트업과 KB금융 각 계열사가 협업해 공동 사업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KB금융과 스타트업의 동반 성장을 실현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KB금융은 각 계열사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와 사업 모델 창출에 적합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보유 기술을 다양한 사업 분야에 실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선정 스타트업에게 KB금융 계열사와의 협업 기회를 제공한다. KB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결과, 실제 업무 적용 가능성과 사업성이 확인된 협업 과제는 KB금융 각 계열사에서 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KB금융은 올해 국내 사업뿐 아니라 글로벌 사업까지 모집 분야를 확대했다.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라이프생명, KB캐피탈 등 총 6개 계열사가 참여해 총 11개의 과제(국내 사업 9개, 글로벌 사업 2개)를 함께 수행할 스타트업을 찾는다.

모집 과제는 ▲퇴직연금 비대면채널 혁신 추진을 위한 연금 킬러(Killer) 콘텐츠 개발(KB국민은행) ▲생성형 AI 서비스 응답 품질 평가 시스템 구축(KB증권) ▲AI 기반 보험설계사 화법 코칭 솔루션 도입(KB손해보험) ▲플랫폼 고객 행동 분석을 통한 개인화 마케팅 효과성 분석(KB국민카드)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 부동산 자동 가격 산정 모델 개발(KB국민은행) 등이다.

선정된 스타트업에게는 실제 사업화 검증에 필요한 지원금(과제별 1000만원)과 KB이노베이션 HUB에서 운영 중인 강남HUB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젝트 룸이 제공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신한은행 전역장교 대상 리더십 특별채용

신한은행이 2025 리더십 특별채용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채용 대상은 이미 전역했거나 오는 6월말까지 전역 예정인 대위 직급 이하 장교다. 모집분야는 개인·기업고객대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규직(일반직)이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및 온라인 역량검사, 1·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4월 14일부터 29일 오전 10시까지 ‘신한은행 채용’ 홈페이지에서 2025 리더십 특별채용에서 가능하다.

/나유리 기자 yul115@

## BNK금융, 금융 불확실성 대비 위기상황관리위 가동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밀착 점검

BNK금융그룹은 경영진, 부서장이 참여하는 경영진 회의를 개최해 미국발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상시 대응을 위한 그룹 위기상황관리위원회를 가동했다고 8일 밝혔다.

BNK금융은 위원회를 통해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울경 지역 수출기업과 협력업체는 물론,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거래 기업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한다는



BNK금융그룹이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상황관리위원회를 가동했다.

/BNK금융

방침이다.

또한 자금시장 동향과 환율 변동 추이 분석을 통한 리스크 관리 점검뿐만 아니라 자회사별 거래 기업 지원 방안

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그룹 차원의 신속한 대응체제 마련을 위해 그룹 대표단 회의를 통해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양승진 기자 asj1231@